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원종*, 이재겸**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e-mail:wjtkfkd77@eulji.ac.kr

The Effects of Recovery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im, WonJong*, Lee, JaeKyeum**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0±.80점, 성격유형은 4점 만점에 평균 2.28±.58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2±.90점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과 대인관계, 동기부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회복 탄력성이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 보통인 편보다, 또한 동기부여가 확고한 편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대학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개선시키고 확고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1. 서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생애주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애주기 중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는 맡은 임무를 성숙하게 감당하며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준비기간으로[1] 학업 뿐만 아니라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과 대인관계, 학업 부적응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대[2].

특히 간호학은 타 학과에 견주었을 때 이론교육과 동시에 1,000시간의 이상의 임상실습을 병행하게 되는데, 간호학에서의 임상실습은 임상전문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이론 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학업과정이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임상실습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높을뿐더러[4], 과다한 학습량과 진학 후의 적성에 맞지 않는 등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어[5]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능동적 관리 능력이 곧 학업의 긍정적 효과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의 성격이나 유형에 대한 파악하여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 및 학생 지도에 적용하여 학과 적응력을 높이고 간호학과 졸업 후 임상실습 현

장에서 생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6].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간호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데, 성격에 대한 유형파악과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7].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총체적인 내적 능력을 말하며[8], 학과 특성상 임상현장에서 실습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9].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자료와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간호학과 학생지도에 충분한 근거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지도 관리 시 개별화된 교수전략을 세워 취업 지도, 진로 결정 및 학생 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성격유형, 전공만족도

(n=2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Resilience		Personality Type		Major Satisfac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49(13.1)	3.24±.75	1.181 (.239)	2.41±.65	1.148 (.252)	3.47±.83	0.644 (.752)
	Female	209(55.7)	3.09±.87		2.30±.57		3.51±.79	
Grade	1-year ^a	71(27.5)	2.72±.57	7.911 ($<.001$) a<b,c,d	2.25±.57	.974 (.405)	3.06±.65	12.768 ($<.001$) a<b,c,d
	2-year ^b	56(21.7)	3.32±.88		2.40±.58		3.80±.75	
	3-year ^c	101(39.2)	3.24±.93		2.35±.62		3.66±.83	
	4-year ^d	30(11.6)	3.27±.79		2.25±.52		3.43±.68	
Religion	Yes	77(29.8)	3.27±.85	-1.945 (.053)	2.40±.67	-1.329 (.186)	3.59±.86	-1.167 (.244)
	No	181(70.2)	3.05±.84		2.29±.54		3.46±.77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a	40(15.5)	3.15±.95	1.134 (.323)	2.44±.53	3.749 (.025) c<a,b	3.56±.86	1.010 (.366)
	3.0~3.9 ^b	196(76.0)	3.08±.84		2.33±.58		3.47±.79	
	2.0~2.9 ^c	22(8.5)	3.36±.66		2.02±.63		3.70±.78	
Major Satisfaction	Bad ^a	10(3.9)	2.50±1.18	16.495 ($<.001$) a<b,c	2.45±.50	0.305 (.737)	2.80±.63	23.733 ($<.001$) a,b<c
	Normal ^b	125(48.4)	2.88±.78		2.30±.57		3.24±.76	
	Good ^c	123(47.7)	3.41±.79		2.33±.61		3.82±.72	
Human relationship	Bad ^a	45(17.4)	2.51±.76	51.754 ($<.001$) a<b<c	2.32±.62	1.335 (.265)	2.94±.65	66.452 (.000) a<b<c
	Normal ^b	128(49.6)	2.92±.73		2.38±.57		3.27±.69	
	Good ^c	85(33.0)	3.73±.68		2.24±.59		4.15±.59	
Motive	Employment ^a	110(42.6)	3.00±.79	3.646 (.013) a	2.40±.56	2.049 (.108)	3.36±.77	7.858 ($<.001$) b<a,c,d
	Recommendation ^b	55(21.3)	2.96±.92		2.36±.57		3.26±.73	
	Aptitude ^c	83(32.2)	3.35±.79		2.21±.60		3.80±.76	
	Other ^d	10(3.9)	3.30±1.16		2.15±.75		3.90±1.02	

*a, **b, ***c, ****d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및 서면에 동의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66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258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회복 탄력성(resilience)

리질리언스는 Connor & Davison(2003)의 Connor & 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10]을 번안하여 백현숙(2010)이 타당화한 한국형 코너-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CD-RIS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1].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질리언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백현숙(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2.3.2 성격유형

성격유형 측정을 위해 Girdano, Everly & Dusek(1990)의 Hart type A척도[12]를 강성군과 장현갑(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3].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의 범위는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다. 24~40점은 A형 성격유형의 특성을 의미하며, 10~23점은 B형 성격유형의 특성을 의미한다. A형 성격유형은 경쟁적이고 야심적이며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성급한 성격의 유형을 의미하며, B형 성격유형은 야망이 적고 이완되어 있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성격유형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류현미(2003)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73이었다. 또한 오진환(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이었다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2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Lee[14]의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 만족, 인식적 만족, 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간의 만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성격유형,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성격유형,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 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회복 탄력성은 학년, 대인관계, 동기부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7.911, p<.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유의하였다($F=51.754, p<.001$).

동기부여는 취업에 대한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3.646, p=.013$). 성격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 분석한 결과 성적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749, p=.025$). 전공만족도는 학년, 대인관계,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보다 2, 3, 4학년으로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12.768, p<.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452, p<.001$). 동기부여는 취업, 적성보다 타인의 권유에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858, p<.001$)[표 1].

3.2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성격유형, 전공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이었고, 성격유형은 4점 만점에 평균 2.28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성격유형, 전공만족도의 정도

	Mean±SD	Range
Resilience	3.50±.80	1~5
Personality Type	2.28±.58	1~4
Major Satisfaction	3.12±.90	1~5

3.3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성격유형,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90, p<.001$)[표 3].

[표 3]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성격유형,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Resilience	Personality Type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1		
Personality Type	-.089 (.153)	1	
Major Satisfaction	.690** (<.001)	-.074 (.234)	1

3.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대인관계, 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 만족도를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586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10~0.980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21~1.098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beta=.119, p<.014$), 전공만족도($\beta=.239, p<.001$), 대인관계($\beta=.476, p<.001$), 지원동기($\beta=.196, p<.001$)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3.4%였다[표 4].

[표 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ec.	B	SE	β	t	p
Constant	.956	.203		4.719	<.001
Grade	.095	.038	.119	2.465	<.014
Major Satisfaction	.335	.070	.239	4.813	<.001
Human relationship	.548	.056	.476	9.718	<.001
Motive	.165	.040	.196	4.110	<.001
F(p)	48.468(<.001)				
R ²	.434				
Adjusted R ²	.425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성격유형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 더욱 건강하게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의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28점이었으며, 이는 중간 기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에게 무엇보다 학업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척도라고 생각하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우수한 전문의료인력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키고 학생 개인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과중한 학업 부담감과 다양한 임상실습의 어려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차원의 실질적인 대처 지원체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자신의 성격유형을 잘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격 분석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수자 면담, 전공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개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 등 유사 학습과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1] J. 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2015.
- [2] G. Y. Lee, T. W. Choi, Y. S. Lee, "Stress Effects on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 6, no. 2, pp. 197-209, 2015.
DOI: <http://dx.doi.org/10.20434/krmc.2015.08.6.2.197>
- [3] Y. H. Ham, S. N. Kim, "The study of situational anxie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in pre-clinical practice", Research Institute for Kyoungbuk, Vol. 8, No. 1, pp. 45-54, 2001.
- [4]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5] K. S. Han, Y. K. Yang,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s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6] M. O.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303-31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303>
- [7]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8, pp. 403-418, 2016.
- [8] J. H. Kim, "Resilience", Wisdom House, Gyeonggi, 2011.

- [9]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H. 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337-346,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37>
- [10] K. M. Connor, J. R. T. Davi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76-82, 2003.
DOI: <http://dx.doi.org/10.1002/da.10113>
- [11] H. 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K-CD-RISC),"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2015.
- [12] D. A. Girdano, G. S. Everiy, D. E. Dusek, "Controlling stress and tension. : A holistic approach,"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USA, 1990
- [13] H. K. Jang, S. G. Kang, "Stress and mental health", Seoul: Hakjisa Inc, Korea, 1996.
- [14]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